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공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케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당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개표조작은 여전히 낱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최순실과 가깝다, 차은택과 가깝다, 우병우와 친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간 모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권력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다. 권력무상 인생무상입니다. 이제는 못했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공갈 협박, 손만 쓰면 사기행각이던 이런 정권이 과연 출발은 온전했는지, 의문이 없으십니까? 지난 대선 부정선거 아니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됐고 4년이 지났지만 총 2902건의 제18대 대통령 불법 개표사례는 바뀌지 않았고 해명되지 않았습다. 이 중에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개표함이 개표장으로 운송중인데, 개표함이 열리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 직후 서울시민 2000여명이 대법원에 박근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던 날, 최순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은 누구나 약속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국민 중에는 대선 부정개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종말론을 맹신하는 광신도인양 치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이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개표부정을 주장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해보면 어떨까요? 민주헌정질서에 있어 그 어떤 범법과 비리도 개표부정의 무게만큼 중하지 않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4일(목) 1부 | 국민 91% "촛 사퇴"...새누리 지지층은 73%

[오프닝]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은 여전히 낱설이어야 하는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최재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인에게 무력감 토로
- "박근혜 대통령 그만둬야" 91%...새누리 지지자도 73%
- 청와대에 성형수술용 약품 왜?... 전문가 "다른 용도론 안 써"
- "최순실, 연예인들 초대해 '김장값' 명목 돈 챙겨"
-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
- [뉴스듣기능력평가] '아이비글로벌리엔스엔주'를 청와대가 왜?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세계도 주목하는 '비아그라 스캔들'...나라 망신 어디까지
- 정권 바꾸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위로 돌리기 가능하다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 우리는 왜 거침없이 비아그라와 피부미용을 조롱해야 하나?
- : 경제학이 가르치는 티포넷 전략
- [공화국 논평] 김현웅 최재경에 대한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

최재경·김현웅 사의

朝鮮日報 최재경 사의, “책임지는 게 당연”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경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다.

중영일보 최재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직 의사를 밝힌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유로 ‘공직자의 도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의를 결심한 건 지난 일요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때문이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후배 법조인에게는 “뭐 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느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 발표를 막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검찰이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박근혜의 죄가 크다는 이유, 내가 이걸 감당했다가는 나도 같이 다치겠다는 판단, 이거 아닐까?

‘사이 박근혜’는 없다

중영일보 새누리 지지자 73%,朴 사퇴 원해



대통령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허물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 91.3%가 하야, 탄핵,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다. 중도에

하차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새누리당 지지자 73%도 사퇴를 원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보다 하야가 월등히 더 많았다. 알아서 그만두라, 더 이상 버티지 말라는 말이다. 대권후보 지지율은 그래픽과 같다.

성형 게이트

東亞日報 靑, 얼굴 성형시술용 마취크림 구입

청와대가 얼굴 성형에 쓰이는 국소 마취제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2014년 6월 보톡스나 필러시술을 하기 전에 사용되는 크림을 다수 구입한 것이다. 또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도 다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품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시술하기 전 마취할 때 주로 사용한다. 회춘하려고 집권한 것 같다.

東亞日報 수술실에서 쓰는 약물로 뭘 했을까?

동아일보 또 다른 기사다. 청와대 내에서 성형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엠라5%크림’은 성형 시술 전에 얼굴 마취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 크림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구매 의약품 목록을 본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술실에서 쓰이는 ‘혈압조절용’ 약물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방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종의 수술이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O!뉴스 제 3의 의사, 세월호 당일 시술 의혹

고발뉴스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가 시술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지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시술한 것으로 지목한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 세브란스 병원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영재, 세월호 당일 프로포폴 사용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됐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휴진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말이 된다.

추악한 최순실 일가

경향신문 朴 자서전 출판사, “우리도 속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출판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출판사들이 최순실에 휘둘린 정도인데 대대적으로 미화된 박근혜의 자서전과 위인전의 출간을 중단하고 일부는 재고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사도 속았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근혜 관련 서적을 내다 버리거나 중고서점에 팔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한 중고서점 사장은 여차피 안 팔릴 책이기 때문에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東亞日報 최순득, 연예인들에게 ‘돈봉투’ 받아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다수의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최순득의 측근이 증언했다. 가사도우미가 담근 김장김치를 최순득이 건넌면 연예인들은 ‘김치 값’ 명목으로 현금이 든 봉투를 전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몇 만 원 들어갔겠나?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각종 정부 행사에 최순дук·장시호 모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靑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의 종”

세계일보는 최순실 일가의 차량을 20년 가까이 운전했던 김모씨의 인터뷰를 연속 보도하고 있다. 김모씨에 따르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이었다고 증언했다. 세명 모두 최순실이 뽑았으며 시키는 일에는 토를 달지 못하고 무조건 시행했다고 한다. “월급은 박근혜가 줬지만 박근혜는 무슨 이야기를 안하니까 최순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업하기 더러운 나라

중앙일보 “한화, 최순실에 김승연 석방 민원”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석방을 위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화그룹의 전 핵심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부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은 2013년 말부터 최순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요청한대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걸 선고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미르·K스포츠 재단에 25억원을 출연했다.

한겨레 “한화증권에 삼성 합병 찬성하라 요구”

한화증권은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국내 50여개 기관투자가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당시 삼성의 로비와 한화그룹의 압력의 진상을 털어냈다. 한화그룹의 사령탑인 경영기획실이 ‘김승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가깝다’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한겨레 檢, 삼성 압수수색은 차 ‘뇌물’ 정조준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모종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이달 들어 삼성을 세 번째 압수수색한 것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자신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환 나와라

東亞日報 “롯데, 면세점 승인관련 최경환 접촉”

검찰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28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롯데그룹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소환 조사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들사람의 얼’이 필요하건만”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원인의 “‘들사람의 얼’이 필요하건만”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라는 인물이 정치무대에 등장한 것 자체가 그 자신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책임 있는 정치가로서 아무런 자질도, 능력도 보여준 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공과 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위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수장학회나 영남대학교를 자신이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온 것은 그가 공민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단적인 증거였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 1980년 봄에 영남대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 와중에 박근혜가 대학의 새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원래 영남대는 박정희가 독재권력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강취(強取)하여 만든 학교였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5·16재단이라는 공익재단에 귀속돼 있었다. 그런데 독재자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 딸이 이 학교를 마치 자기 부친이 물려준 정당한 사유재산인 양 상속을 해버린 것이다. 공과 사의 구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이 너무도 뻔뻔스러운 처사에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무도한 군사정권의 지배 하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굴종의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쫓아보니 그로부터 35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새삼 우리가 놀라는 것은, 실은 이 나라의 정치판과 언론계에서는 박근혜라는 개인이 정치가로 등장할 때부터 그가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는 선거제도가 갖는 허점을 타서 승승장구한 끝에 드디어 대통령이라는 지위까지 상속을 하였고, 그 결과 나라는 철저히 망가져버렸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하거나 방조해온 자들, 어용언론과 여당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소위 야당 정치가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